

전북경제 '도우미' 중소기업육성기금

올해 668개 업체 시설투자·운전자금 등 2123억원 지원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 조기 소진에 200억원 추가 배정

전북도는 도내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이 올해 큰 성과를 나타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의탁기관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총 668개 업체에 2123억원을 지원했으며 시설 투자에 1028억원, 운전 자금을 854억원, 벤처 자금을 145억원, 한국GM 군산공장 및 조선업 협력업체에 96억원을 지원해 유추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했다.

특히 올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유류공장을 매입해 시설 확충에 나선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투자도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수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으며 군산·완주산업단지, 익산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도내 산업단지 및 사군 농공단지 조성으로 입주업체가 증가한 것도 요인으로 확인됐다.

2019년 도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은 신청 접수가 마감됐으며, 현재 신청이 가능한 자금은 ▲한국GM 및 조선업 관련 군산공장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한도 3억원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에서 부도나 장기 매출채권 회수 지연 등 일시적 경영으로 상황이 발생한 기업에게 원금상환을 1년 간 유예하는 자금이다.

2020년 도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별 지원계획은 총 1900억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800억원, '경영안정자금' 85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50억원이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한국GM·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어려운 기업운영 상황을 고려해 '한국GM·조선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별도 배정했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3000억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자금별 소진상황에 따라 자금 지원 규모 등을 조정,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천시, 남해안권 발효식품 센터 건립 '탄력' 농림축산부 지원 100억원 최종 확정...내년 본격 추진

순천시가 추진해 온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조감도) 건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돼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2019년 6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추진해 11월에 완료하고 남해안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 규모의 공모를 실시해 지난 20일 순천시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순천시미생물센터와 연계해 남해안권을 아우르는 발효식품산업 연구개발 및 융복합산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산 및 연구시설, 행정 및 기업지원실, 숙성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2020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식품의 개발과



명품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발효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센터 건립으로 순천시 지역 뿐 아니라 남해안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상품개발, 기능성 분석, 마케팅 지원 등 발효식품산업의 모든 공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창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으로 영세 농가는 물론이고 창업 예정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동학혁명·정음농약 주제 정음시, 역사 벽화길 조성 수성동 구미마을 240m 철제 담장

정음시가 최근 수성동 구미마을에 동학농민혁명과 조선왕조실록, 정음농약 등을 주제로 역사 벽화길을 조성해 눈길을 끈다.

240m가량의 철제 담장 길에는 정음의 역사·문화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17개 주제로 표현됐다.

시는 내년에도 공동체 회복과 옛 도심 환경개선 차원에서 구미마을의 노후한 벽화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음시장은 "변신한 벽화길이 걷고 싶은 거리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 사람, 자연이 어우러진 활기찬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유진섭(맨 오른쪽) 정음시장이 수성동 구미마을을 찾아 새로 단장한 벽화길을 살펴보고 있다. <정음시 제공>



퇴직 앞둔 윤석호 건강보험공단 함평출장소장 저소득층에 사랑의 쌀 기탁 '훈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함평출장소 윤석호(사진 왼쪽 세번째)소장이 퇴직을 앞두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쌀을 함평보건소에 기탁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윤 소장은 "20대 부푼 꿈을 안고 함평군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2년의 세월이 흘러서 퇴직을 하게 됐다"며 "2003년 출장소장으로 승진해 주민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 건강검진 건강증진 업무에 열정을 쏟았던 일,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고향에서 함평운영센터로 개소식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 노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지난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대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

키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보험료를 받아오기도 했으며 휴먼지 뒤집어 쓰고 면사무소에 돌아오면 '2년만 버티면 제도가 정착이 될 거네' 했던 면장님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 회상했다.

윤 소장은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공무원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던 건강보험의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5월 함평군민의 상을 수상했다.

윤 소장은 "적지만 지역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쌀을 기탁했다"며 "앞으로 자연연으로 돌아가 제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면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

고창군, 보리새싹 등 농식품 판매량 급증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기술 이전 제품 품질·효능 인정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고창군 농식품 업체에 기술 이전한 제품들이 우수한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창군 농식품 업체를 위해 205건의 제품을 연구 개발했고, 이 중 75건을 기술 이전에 매년 약 50억4300만원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9개 업체에 복분자와 과채류를 이용한 착즙 주스 등 총 17건의 연구개발 제품을 기술 이전할 예정이다.

딸기를 활용해 동결건조한 기술이전 제품은 한정된 생과와 판매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해 판매가능하고, 홍도라지를 이용한 제품은 기관지에 탁월한 효능을 가져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올해 연구개발해 기술이전한 보리새싹 <사진>과 호박죽 등은 각 7억1000만원, 3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연구소는 연구개발한 제품을 기술이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 판촉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 KTX 익산역 주차환경 개선 나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철도 이용객 발레파킹 서비스 등

익산시는 KTX 익산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 확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는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하고 철도 이용을 대상 발레파킹 서비스를 통해 KTX 익산역 주변 주차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익산역 남부공영주차장 87면, 올해 11월에는 노상주차장 20면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또 코레일네트웍스와 협약을 통해 철도 이용객들이 익산역 서부주차장 372면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시는 익산역 서부주차장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되고 익산역 이

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역 인근 공영주차장 2곳에 190면을 추가 조성하고 철도이용객 대상으로 발레파킹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가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은 익산역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 5월 중 40면을 먼저 조성하고 이후 연말까지 15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발레파킹 서비스는 이용객들의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대신 주차해주는 서비스로 오는 2020년 1월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부설주차장 이용 협약을 체결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